

우도 신궁: 쓰다듬 토끼

쓰다듬 토끼(쓰다듬기 위해 설치된 토끼 석상)는 우도 신궁 경내에 설치된 수많은 토끼 석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쓰다듬 토끼는 신사의 주요 제신인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의 사자로 여겨지는데, 병을 낫게 해주는 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참배객들은 새전함에 적은 금액의 새전을 넣은 후, 낫길 바라는 부위와 동일한 토끼의 부위를 쓰다듬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비슷한 방식의 석상이 존재하는데, 이는 적어도 에도 시대(1603-1867) 이후 여러 신사와 일부 불교 사원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를 본뜬 석상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다른 동물이나 부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